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의미 있는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3부 '하나님 말씀의 본질', 제10장, 125–136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하나님을 '주'로 드러내는 세 속성을 다스리는 능력, 권위, 임재로 본다. 앞 장(9장)에서 능력을 다뤘고, 이 장에서는 두 번째인 권위를 다룬다. 그는 먼저 권위를 '듣는 사람 안에 의무를 만드는 힘'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권위는 말의 '의미', 곧 그 말이 전하는 내용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래서 능력만 보고 내용을 버린 신정통주의도, 내용은 보되 신적 능력을 버린 구 자유주의도 반쪽이라고 비판한다. 그다음 성경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언약의 대화'로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을 차례로 살핀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검증할 다른 잣대가 없었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킬 때도 말씀 자체를 믿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주이자 가장 신실하게 들으신 분인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본다. 결론은 이렇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

📜 절별 정리

📜 1. 권위는 의미에서 나온다 (원문 도입부 ①)

프레임은 1장과 2장의 논의를 이어받는다. 권위 있는 말이란 듣는 사람에게 의무를 만드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지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 선입견, 우선순위, 기쁨과 슬픔까지 이끈다.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은 권위를 가지며, 그 권위는 궁극적이다. 곧 그 위에 다른 권위가 없다. 프레임은 말의 '능력'(말이 하는 일)과 '의미'(말이 전하는 내용)를

능력은 일이 일어나도록 명령하시는 권위에서 오므로, 능력은 의미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비추는 '관점'이다. 반대편에는 두 극단이 있다. 구 자유주의(리츨, 하르낙, 헤르만)는 성경의 말을 뜻은 통하지만 다른 인간 문헌처럼 연구하고 평가할 인간의 말로 보았다. 신정통주의(바르트, 브루너, 불트만)는 프레임의 평가로는 말씀을 신적 능력으로는 잘 이해했지만, 말씀이 내용을 담은 언어라는 점은 부인했다. 도예베르트의 일부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능력 중심'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전통 신학과 성경은 말씀을 능력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본다.

1. 권위 = 듣는 이 안에 의무를 만드는 힘
2. 믿음·행동만이 아니라 감정·기쁨·슬픔까지
3. 능력은 '하는 일', 의미는 '전하는 내용'
4.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과 의미는 서로의 관점
5. 자유주의는 능력을, 신정통주의는 의미를 놓침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1장(권위의 정의)과 9장(말씀의 능력)의 성경 논증에 기댄다

(없음)

📜 2. 뜻이 담긴 말씀: 창조에서 언약의 대화까지 (원문 도입부 ②)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기만 하신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령하셨고, 각 사물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름을 붙이셨다(낮, 밤, 하늘, 땅, 바다). 피조물의 본성과 역할을 말로 정하시고 '좋았더라'는 말로 평가하셨으며, 인간의 본성과 사명도 말씀으로 정의하셨다.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같은 일이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아무렇게나 붙이는 꼬리표가 아니었다. 동물의 본성을 가리키는 뜻있는 단어 체계를 만들라는 사명이었다. 9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신다. 그

바람, 의도, 사랑, 은혜를 전하신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응답할 의무를 만든다. 사랑을 나누시면 귀히 여기고, 물으시면 대답하고, 은혜를 보이시면 신뢰하고, 소원을 말씀하시면 삶을 맞추고, 지식을 알려 주시면 참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대화로 짜여 있다.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는 언약의 역사다. 각주 두 곳이 이를 보충한다. 설교에서 흔히 쓰는 '다이너마이트' 비유는 한계가 있다. 다이너마이트는 부수고 흩어 버리지만, 말씀의 능력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첫 사흘은 장소를, 다음 사흘은 그 장소에 사는 것들을 지으신 것이 그 질서를 보여 준다. 또 창조 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 때에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

1. 말씀은 맹목적 힘이 아닌 의미 있는 소통
2. 창조 때 이름 짓기·평가·정의도 말로 하심
3.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지혜로 의미가 있음
4. 사랑·질문·은혜·소원마다 응답할 의무
5. 성경 역사 = 말씀과 응답의 언약적 대화

> **창세기 1:5, 8, 10**
> 하나님이 낮·밤·하늘·땅·바다를 '부르심', 곧 이름으로 의미를 정하심
>
> **창세기 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 **창세기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 **창세기 1: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시편 147:4**
> 하나님이 별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심, 이름 짓는 하나님
>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이름으로 불러내심, 같은 뜻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세기 1:27-28

인간의 본성(형상)과 사명(번성·다스림)을 말씀으로 정의하심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9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짓기를 맡기심, 뜻있는 언어 체계를 세우는 사명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시편 104:24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심, 세계 전체가 의미 있음의 근거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창세기 1:2

(각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말씀이 질서로 바꿈 *원문 표기 '창 1:1'은 1:2의 오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62:2; 이사야 65:15

(각주) 새 이름을 주심

이사야 62: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 65: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사야 43:7; 예레미야 7:10; 아모스 9:12

(각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이사야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레미야 7: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모스 9:12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결코 맹목적인 힘이 아니다.”

📜 3. 아담과 하와 (원문 소제목 1)

먹을 권리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는 금지를 더하셨다. 창세기 3장은 말씀이 이야기의 중심임을 보여 준다. 말하는 동물은 이솝 우화에는 흔하지만 성경에는 드물다. 프레임은 발람의 나귀가 유일한 다른 예라고 본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뱀을 통해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하나님, 남자, 여자, 동물 순)를 정확히 뒤집으려 했다. 타락 뒤에 서로 탓하는 모습에서 그 뒤집힘이 드러난다. 하와는 뱀을, 아담은 아내를 탓하고, 두 사람 모두 은근히 하나님의 섭리를 탓한다. 핵심 대결은 최고 권위를 주장하는 두 말,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 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의심하게 하고, 이어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둘 사이를 판정할 제3의 권위가 없었다. 과학도 철학도 다른 종교도 없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 판단을 신처럼 믿었다. 프레임은 이것이 앞서 3–7장에서 다룬 '자율적 이성'의 기원이라고 본다. 자율적 이성이란 하나님 말씀까지 내 판단의 법정에 세우는 태도다. 그들은 다른 전문가인 척하는 목소리가 반박하더라도 검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했다. 이야기에서 결국 이기는 것은 말씀이다. 불순종은 저주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뜻밖에 은혜도 선포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이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첫 암시다. 죽음이 즉시 오지 않고 자녀와 수고의 열매가 있으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은혜는 말씀 말고는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사람이 검증 없이 믿었다. 아담은 아내를 '죽음'이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생명'(하와)이라 불렀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했다.

1. 첫 경험 =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2. 타락 = 최고 권위를 다투는 두 말의 대결
3. 사탄: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어 반박함
4. 판정할 제3의 권위 없음, 자율적 이성의 뿌리
5. 은혜의 약속도 말씀만으로 믿음(생명·가인)

> **창세기 1:28**
>
> 첫 경험은 말씀 듣기, 땅을 채우고 동물을 다스리라는 사명
>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창세기 2:16-17

먹을 권리를 주심과 선악과 금지 명령, 말씀이 삶의 경계를 정함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1

사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며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함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4-5

사탄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함, 두 권위의 충돌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계시록 12:9

옛 뱀 = 사탄, 뱀 뒤에서 말하는 자의 정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민수기 22:27-30

(각주) 발람의 나귀,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의 드문 다른 예

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창세기 3:14-19

불순종이 저주를 부름, 말씀이 이야기에서 이김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 메시아의 첫 암시 *저자는 장절을 따로 적지 않음. 정리자가 붙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20

아담이 아내를 '하와(생명)'라 부름, 은혜의 말씀을 믿은 증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4. 노아 (원문 소제목 2)

노아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시작한다. 당시 날씨가 어땠든 노아에게는 온 인류를 쓸어버릴 홍수가 온다는 말씀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마른 땅에 거대한 배를 지을 동기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 불신의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다. 신약은 지금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상과 즐거움을 이어 가다가 쓸려 갈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새 홍수'를 준비한다. 히브리서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반응했다고 칭찬하며, 그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델로 세운다. 노아는 순종했을 뿐 아니라 남에게 전하기도 했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베드로후서 3장을 덧붙인다. 하늘의 물을 붙들고 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홍수를 경고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홍수를 일으켰다. 지금의 하늘과 땅도 같은 말씀으로 불을 위해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 말씀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1. 홍수 경고를 확인할 수단이 없었음
2. “명하신 대로 다 준행”, 말씀으로 충분
3.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처럼 경고를 무시
4. 히브리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로 반응
5. 말씀이 홍수를 경고하고 일으키기도 함

> **창세기 6:8**
> 노아 이야기는 여호와의 은혜로 시작함
>
>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

창세기 6:22; 창세기 7:5, 9

"명하신 대로 다 준행", 검증 없는 순종

창세기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마태복음 24:37-39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처럼 경고를 무시하다 쓸려 감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43-44

깨어 준비하라,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 자가 '새 홍수'를 준비함

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히브리서 11:7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음, 믿음의 모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5

노아는 의를 전파한 사람, 순종에서 전파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3:5-7

(각주) 말씀이 하늘과 땅을 세우고 홍수를 일으키며 지금도 보존함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했다.”

📜 5. 아브라함 (원문 소제목 3)

신약이 구원하는 믿음의 최고 모델로 내세우는 구약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며 복을

검증 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증거가 정반대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백 세가 넘었고 사라는 출산할 나이가 한참 지났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를 “여호와께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겠느냐”로도 옮길 수 있다고 짚는다. 아브라함의 신뢰 기록에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과 하갈 사건이 그 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더 큰 그림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바울은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한 본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마침내 이삭('웃음')이 태어나 사라의 비웃음을 무색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다. 프레임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하나님 자신의 도덕법에 어긋나 보이는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본다. 나중에 신명기에서 인신 제사가 금지되지만, 그 전 사람들도 이를 악하다고 여겼으리라는 것이다. 이삭이 죽으면 후손을 통해 복 주시겠다는 이전 약속과도 충돌해 보였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밝히셨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순종 말고 다른 길이 없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 주는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다. 야고보는 이 순종이 믿음을 온전케 했다고 하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과 자손'이라는 언약의 두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는 땅 한 뼘 갖지 못한 채로 땅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 자신이 자손의 약속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약속을 믿었다.

1. 믿음의 대상 = 하나님의 말씀
2. 증거가 반대를 가리켜도 약속을 신뢰
3. 흠 있는 기록에도 믿음을 의로 여기심
4. 모리아: 이전 약속과 충돌해 보여도 순종
5. 땅과 자손, 언약의 두 약속을 걸고 시험

> **로마서 4:1-25**
>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본보기
>
>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

갈라디아서 3:6-9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모델

[6]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1:8-9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남

[8]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고보서 2:21-24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 이삭을 바친 사건

[21]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과 약속, 검증 수단 없는 출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7:15-21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

창세기 18:12-15

사라가 속으로 웃음, 증거가 약속과 반대를 가리킴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8:14

(각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으로도 읽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2:10-20

아내를 누이라 속임, 아브라함의 신뢰에도 흠이 있음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

창세기 16:1-16

하갈 사건,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 함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로마서 4:16-25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 우리 부활 신앙의 본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창세기 22장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말씀끼리 충돌해 보이는 시험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창세기 22:11-14

대신할 숫양,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 줌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신명기 18:10

(각주) 인신 제사 금지, 명령이 도덕적으로 충격이었음을 보여 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야고보서 2:22

순종이 믿음을 온전케 함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19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6. 예수 (원문 소제목 4)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는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으신 분일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들으신 분이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말씀하셨다.

된 권위에서 우리 눈을 돌리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말로 증언하러 오셨다. 그분의 사명은 계시하는 일이다. 모세의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이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 물론 계시가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다. 그러나 구속하시는 행동은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의 계시는 그 행동을 해석해 준다. 그래서 계시와 구속은 한 사역을 보는 두 관점이다. 구약은 말씀 중심이지만 신약은 말 없는 계시(인격이나 사건)로 넘어간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도의 최고 기준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부르는 것은 소용없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그분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은 특히 말씀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말을 듣는다. 프레임이 가장 주목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2:47-50이다. 여기서 네 가지가 드러난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그 말의 내용('무엇을 말할지')과 표현('어떻게 이를지')을 모두 정하셨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각주는 헬라어 두 동사를 설명한다. 레고(말하다)는 내용을, 랄레오(이르다)는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이 나온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면서 그 말씀을 넘어 예수님 자신께 호소할 수는 없다. 프레임은 이것을 신정통주의의 방법으로 본다. 둘째, 표현 형식을 버리고 '핵심 내용'에만 호소할 수도 없다. 셋째,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영생을 주장할 수 없다. 요한의 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부른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의 말씀을 상기시켰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지를 교제의 기준으로 삼았다. 결론은 이렇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비난할 자리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든 듣고, 믿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의무를 만든다.

1. 예수 = 가장 권위 있는 화자, 가장 신실한 청자
2. '말씀이신 예수'가 말의 권위를 지우지 않음
3. 계시와 구속은 한 사역의 두 관점

요한복음 8:28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함, 신실한 청자 예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0:18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심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49-50

아버지가 말할 것을 명하심 (아래 12:47-50과 함께)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10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5:15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되심, 성육신하신 말씀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8:37

진리를 증언하러 오심, 말로 하는 증언이 사명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17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계시를 이으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18

독생자가 아버지를 나타내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는 자만 아버지를 앎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여" 부르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함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5:17-20

율법을 완성하러 오심, 아버지의 뜻은 모세 율법에도 있음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24-29

반석과 모래 위의 집, 예수님 말씀이 제자도의 기준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과 그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도 부끄러워하심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8:21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63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8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예수님 말 =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12:47-50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15, 21, 23

사랑하면 계명을 지킴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7, 10

말씀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킴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6, 17

말씀을 지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일서 2:3-5; 요한일서 3:22; 요한일서 5:2-3

계명 순종이 그를 알고 사랑하는 증거

요한일서 2:3-5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5:2-3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이서 1:6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2:17; 요한계시록 14:12

하나님의 백성 =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요한계시록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행전 20:35

바울이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3-4

주 예수의 바른 말을 따르는지가 교제의 기준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 오해와 반론

📖 용어

주권적 속성

하나님이 '주'이심을 드러내는 세 특징으로, 프레임은 다스리는 능력, 권위, 임재를 든다.

권위

말하는 이가 듣는 사람 안에 믿고 행하고 느껴야 할 의무를 만드는 힘이다.

의미

말이 전하려는 내용이다.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뜻이 담겨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정

프레임이 즐겨 쓰는 말로, 한 실재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다. 예를 들어 능력과 의미, 계시와 구속이 그렇다.

구 자유주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무렵 독일에서 성경을 인간의 종교 문헌으로 보고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한 신학 흐름이다.

신정통주의
20세기 초중반 자유주의에 반대해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강조했지만, 성경 문장 자체를 계시와 같게 보지는 않은 흐름이다. 바르트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적 이성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최종 법정으로 삼는 태도로, 프레임은 이것을 타락의 뿌리로 본다.

언약적 제재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는 것이다.

원시복음
창세기 3:15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리라는 약속으로, 성경 최초의 복음 암시라는 뜻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신 일로, 요한복음 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가리킨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을 뿐 아니라 뜻이 담긴 말이며, 그 의미가 우리 삶 전체에 궁극적 의무를 만든다.
-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언약의 대화이며, 복과 저주는 그 응답에 따라 온다.
-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판정할 다른 잣대 없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했다. 타락은 그 신뢰를 버리고 자기 판단을 신처럼 믿은 데서 시작했다.
-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이자 가장 신실하게 들으신 분이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편 ·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